



사찰과 주민은 하나 신행물결 '넘실'

남제주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 제물(祭物)을 짚에 가지고 와요. 농사를 지으면 수확해서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마을 제사가 있을 때는 스님들도 참여하지요. 마을 사람들 집안일도 도와주고요. 제주 사람들은 가족의 '무사안일'을 늘 기도해왔는데 지금도 그런 풍습이 남아 있어요. 그 절박하고 애절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은 바로 스님들이지요."

남제주군에서 만난 선광사 주지 수열 스님은 제주의 스님들과 주민들은 한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주불교만의 특징인 사찰과 주민들의 일체성. 그것은 꼭 기복적인 측면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제주 사람들의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스님들에 대한 믿음에는 불교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육심부리지 않고 현재의 삶을 살면서 '정도'에 한 발짝씩 다가가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염원이 담겨있다. 서귀포(西歸浦)라는 지명에는 바로 이런 제주인

들의 바람이 스며있다. 서귀포는 아미타부처님이 주관하고 있는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西方淨土 阿彌陀佛'에 歸依한다'는 염원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이런 경향은 북제주보다는 남제주 쪽이 강하다.

재가불자 힘모아 서귀포불교대학 설립 법회사, 연꽃축제 개최 등 문화포교 앞장

그럼 수밖에 없는 것이 서귀포를 중심으로 한 남제주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북제주보다 개발이 덜 되면서 상대적으로 옛날 풍습과 전통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다. 남제주 역시 북제주와 마찬가지로 사찰들의 활동이나 불자들의 신행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북제주와 비교해 불자들의 신행이 더욱 자발적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사찰과 스님이 신도들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닌 '동반자'로서 함께 불교를 이끌고 나간다는 점도 남제주 불교의 장점이자 특성이다.

뒤집어 말하면 재가불자들의 의욕과 활동이 그만큼 왕성하다는 의미다.

남제주불교가 자랑하는 서귀포불교대학은 바로 이런 특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서귀포불교대학은 특정 사찰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재가불자들이 세운 사단법인체다. 졸업생만도 1천명이 넘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토포를 뚫어놓았다. 최근에는 불교대학 소유의 학사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신행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한 것도 바로 제주불자들의 주인의식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서귀포불교대학 총동문회, 정토거사협회, 제주불교산악회, 불다클럽 전지회, 연꽃합창단 등 서귀포의 대표적 신행단체들은 신행활동 외에 봉사활동 등을 통해 불교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사람들의 활동도 활발하다.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약천사. 남제주를 대표하는 사찰이자 관광사찰인 약천사는 최근 몇 년 새 종합도량으로서의 이미지



서귀포 약천사는 관광 사찰이자 수행·문화·복지 등 종합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지역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 조계종 국제포교사들이 약천사에서 한국문화체험 일환으로 서귀포를 하는 모습.

놓는 등 활동 폭을 넓혀가는 중이다. 최근 '구하루'를 복원하는 등 사격을 갖춘 법회사는 연꽃축제와 사생대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면서 문화도량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법회사는 또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1997년 연화어린이집을 개원, 어린이 포교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제주의 대표적 수행도량인 남국선원은 수행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고, 월라사는 불교아카데미와 어린이 불교학교로, 선덕사는 군 포교로 지역불교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관정사는 시민선방과 노인복지시설, 선광사는 어린이집 건립을 각각 추진 중이고, 존자암은 내년부터 국제민간을 기원하는 국성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 늘어날 전망이다. 남제주 불교가 상강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사

실이지만 그렇다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 과제는 남제주 북제주 할 것 없이 제주불교 전체의 숙제이기도 하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불교방송 건립이다. 과거에 한 두 차례 논의에 그쳤던 불교방송 건립은 제주 사찰들과 불자들의 염원이자 제주불교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조계종과 태고종간의 융화도 필요하다. 표면적으로는 별 마찰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상태로 몇 년이 더 흘러갈 경우 제주불교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제주 스님들은 우려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담보상태에 머물렀던 태고종 제주교구의 일선도 필요하다고 제주 스님들은 말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35년간 제주불교 지킴이

연중 스님 (서귀포 관음굴사 주지)

연중 스님은 35년 간 제주 불교를 지켜온 '어른'이다. 일봉선교종 종장이기도 한 스님은 1970년에 관음굴사를 장건하고 법회를 열며 지역 포교에 나섰다. 그리고 곧바로 한림읍 응포리에 응포 포교당을 개설해 불자들의 신행을 도왔다. 자료 수집하기를 좋아해 연중 스님 방에는 불교 관련 신문기사와 이런저런 자료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다른 욕심은 없다. 그저 후학들이 불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할 뿐이다. 사찰일도 늘 손수 한다. 손이 성할 날이 없을 정도. 제주 불자들은 그런 스님을 믿고 존경한다. 서경보 스님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발원을 하고 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설립

도성 스님 (서귀포 수행사 주지)

지난 4년 간 태고종 제주교구 총무원장을 맡아 교구와 제주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을 쏟았다. 특히 총무원장 재임기간 중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제주태고원을 개원, 제주불교 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도성 스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복지 and 신도교육, 공부와 실천이 하나가 되어 한다는 소신을 신도들에게도 늘 강조한다. 총무원장 임기가 끝나면 선암사 등지에서 수행에 몰두하고 싶다고.

태고종사 간행팀 이끌어

수열 스님 (남제주군 선광사 주지)

제주시 금봉사 수암 스님과 함께 태고종 제주교구의 핵심 인재로 꼽힌다. 수열 스님은 선광사 주지를 맡은 이래 34년 간 발로 뛰며 태고종 제주교구와 제주불교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았다. 40대 후반에 제주교구 총무원장을 했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종단 내에서 뜻 맞는 스님들과 태고종사 간행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을 맡아 종단 정체성 확립에 나서는 한편, 태고종 종중연구원으로서 종학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등 태고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화합을 중시 여기며, 어린이집을 짓겠다는 신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영천사를 신도들의 사찰로

운곡 스님 (남제주군 영천사 주지)

태고종 제주교구의 중의원과 사정위원장 중



회부의장 등을 지내며 교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제주교구발전이 곧 제주 불교 발전이라는 믿음으로 교구 외 외에도 신행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운곡 스님이 강조하는 것은 생활불교, 봉사단체, 합창단 등 영천사 신도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스님은 늘 사찰주인은 신도들이라고 일버릇처럼 말한다.

대웅전 불사와 영탑 불사를 통해 영천사를 '신도들의 사찰'로 만들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존자암 발굴·성역화 사업 진행

법정 스님 (서귀포 존자암 주지)

법정 스님은 존자암 주지로 온 이후 7년 동안 오로지 존자암의 역사적 의미를 되찾고 복원을 하는데 헌신을 기울였다. 고려대장경 제30권 '법주기(法住記)'에 기록돼 있는 탐라국 발타라존자가 구백나한과 함께 한라산 영성에 법주도량을 개설해 중생을 제도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존자암 발굴작업을 벌인 한편, 국성재와 대웅보전 등을 건립하는 등 존자암 성역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내부행사만 진행돼 온 국성재를 불교계와 지역민이 참여하는 공식행사



로 열어 국제민간과 국운융합을 기원했던 국성재 본래의 취지를 사회적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음성포교 15년, 앨범 6장 발표

지범 스님 (서귀포 불광사 주지)

지범 스님은 효심이 지극한 스님. 노래하는 스님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오직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구수의 노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산다. 스님의 노래에는 모정을 향한 절절한 마음이 배어있다. 음성포교에 나선지도 벌써 15년째. 지금까지 6장의 앨범을 냈다. 자신의 노래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지범 스님은 욕심이 없다. 음반을 판매해도 수익금은 모두 불음보급회로 환원하고 있다. 지범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한다. KBS는 스님의 '모정불심'을 다큐멘터리로 제작, 내년 5월 방영할 예정이다.

운불련·법화불음봉사단 창립

관호 스님 (서귀포 해관정사 주지)

출가 젊은 스님답게 왕성한 활동을 벌이면서 지역 불교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제주 운불련과 합창단인 법화불음봉사단을 만들고, 신행단체인 선우회와 법우회 등 10여개 신

행단체를 이끌어 지역 불자들의 신행을 도왔다. 현재 제주교도소 교화위원과 제주경찰서 경승을 맡고 있다.

특히 관호 스님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올바른 불교 공부와 사회회화. 서귀포불교대학 강의를 하고 있으며, '절=학교'라는 생각으로 불자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또 불교의 사회회화를 강조하며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싶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교육·문화·복지 종합도량으로

원조 스님 (서귀포 약천사 주지)

원조 스님은 주지소임을 맡은 지 3년 만에 약천사를 교육·포교·문화·복지 등을 갖춘 종합도량으로 바꾸어 놓았다. 또한 약천사에서 조계종 포교사 교육과 한림불교문화교류대회를 여는 등 사찰을 수행도량이자 문화교류의 장으로 발돋움시켰다. '주지는 절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이 확고하며, 예불과 율력을 빠뜨리지 않는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사찰 도서관을 만들고 개인장서만도 1천여 권이 될 정도로 책을 좋아한다. 약천사 자원봉사단이 서귀포 36개 봉사단체 중 최우수 단체로 선정될 정도로 복지활동도 활발하다.



"치솟는 난방비용 이제 마음껏 쓰세요"

난방비의 획기적인 절감 및 균일난방 효과로 현재보다 따뜻하게 쓰면서도 난방비는 최저 20% 최고 50%까지 절감됩니다. (최저 15% 법적보장) 저렴하고 간단한 설치로 한여름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2005년도 EPS밸브 설치 현황

부산 남도빌라 · 청주 두진빌라 · 안동 현대아파트 · 목동 우성아파트 · 일산 후곡아파트 · 산본 한양아파트 인천 작전동 동보아파트 · 대전 한밭대학교 신축 기숙사 · 부천 오정지구 주공아파트 현장

● 현재 전국 각 사찰에서 시범설치 점검중이고, 난방비 절감 확인 후 많은 사찰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절감을 15%이상 안될 시 환불해 드립니다)

(주) 이플러스세이버 TEL. (02)470-0400

EPS밸브를 설치하게되면

- 내 방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난방온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침실 22℃, 거실 18℃, 공부방 20℃, 할머니방 26℃)
- 시공과 운전조작이 간편함
- 불필요한 보일러의 가동시간을 줄여 세대 내 모든 공간을 한여름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를 20~50%까지 절감시켜줍니다
- 아파트의 가격상승 및 선호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EPS밸브는 이런곳에 사용 됩니다.

-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보조난로,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도 쾌적한 난방효과가 없는 집(화재요인감소)
- 터무니 없는 난방비에 비해 추운집(안방은 덥고 할머니 방은 추운 곳)
- 방마다 온도조절을 따로 하거나 별도의 난방시공을 해야 하는 집
- 심야전기용량이 부족한 집
- 한여름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집

※ 개별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